

## ◇기능적 단심실의 장기에후에 대한 연구분석

강창현, 이정렬, 김용진, 노준량, 서경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기능적 단심실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궁극적으로 폰탄술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폰탄술식의 장기성적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기능적 단심실 환아가 폰탄술식을 시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복잡심장기형에 따라 그 장기에후가 다른 며 시행된 고식적 술식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기능적 단심실에 대한 수술적 고식과 교정에 따른 장기에후를 분석하여 기능적 단심실의 장기 예후에 대해 규명하려 하였다.

**방법** : 저자들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기능적 단심실을 가진 선천성 심기형 환자로써 고식적 수술 혹은 교정술을 받은 3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임상기록을 분석하였다. 환자의 성비는 남자 205명, 여자 110명이었으며, 술전 진단은 삼첨판 폐쇄증 59명, 좌심실형성부전증후군 12명, 중복개구를 동반한 기능적 단심실 200명, 기타 복잡성 심기형 27명이었다. 환자군을 시행받은 고식적 수술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 체폐동맥 단락술을 시행받은 제1군 [n=129], 폐동맥밴딩을 시행받은 제2군 [n=50], 기타 양방향성 체정맥-폐동맥단락술을 시행받은 제3군 [n=35], 그리고 고식적 수술을 시행받지 않고 직접 폰탄술식을 시행받은 제4군 [n=81]으로 나누었다.

**결과** : 대상 환자들의 평균 추적관찰기간의 중앙값은 3.9년이다. 대상환자중 완전교정술식인 심실중격형성술이나 완전폰탄술식은 204례 [64.8%]에서 시행되었다. 제1군은 72례 [55.8%]에서 폰탄술식까지 도달하였으며 술후 조기사망은 18례, 만기사망은 12례, 추적관찰중 소실은 20례, 폰탄술식을 대기하는 환아가 6례 있었으며, 제2군은 22례 [44%]에서 폰탄술식까지 도달하였으며 조기사망 8례, 만기사망 7례, 추적관찰중 소실 8례, 폰탄술식을 대기하는 환아가 3례있었으며, 제3군은 20례 [57.1%]가 폰탄술식까지 도달하였으며 조기사망이 7례, 만기사망이 1례, 추적관찰중 소실이 2례, 폰탄술식을 대기하는 환아가 4례 있었다. 제4군에서는 조기사망이 12례, 만기사망이 2례, 추적관찰중 소실이 13례 있었다. 각 군의 출생후 5년 생존율은 제1군이 64.5%, 제2군이 52.3%, 제3군이 59.6%, 그리고 제5군이 85.2%였다.

**결론** : 기능적 단심실의 장기에후는 폰탄술식까지의 도달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폰탄술식에의 도달은 각 환자의 선천성 심기형과 시술된 고식수술에 따라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